

'나'라는 브랜드, 한눈에 꽃히게 광고하자

광고인의 생각 훑치기

김중섭 지음

"우리 모두는 브랜드의 주인이다", "사람은 모두 광고인으로 태어난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 부산국제광고제 본상, 홍콩 Asia Pacific Stevie Awards 마케팅 부분 금상 등 국제 광고에서 수차례 상을 휩쓴 광고인 김중섭 씨가 주인공이다.

그의 지론을 하나로 압축하면 "모든 사람이 콘텐츠"라고 볼 수 있다. 이번에 김 씨가 펴낸 '광고인의 생각 훑치기'는 메시지 전달력을 높이는 광고 전략을 담고 있다.

저자는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단언한다. 언급한대로 우리 모두는 브랜드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나'라는 브랜드를 끊임 없이 팔아야 하는 게 현실이다. 물론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폐업하는 순간까지 회사 브랜드를 팔아야 한다.

오늘의 시대는 이미지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대세를 따라 페이스북도 해보고 인스타그램에도 접해보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다. 올리기만 하면 '좋아요' 수가 쏠쏠할 줄 알았는데 고작 아는 이의 하트 몇 개가 전부다. 일반적인 아이디어는 다른 상대에게도 알고 이미 다 알고 있기 마련이다.

기존의 아이디어 수준을 뛰어넘는 '빅 아이디어'가 필요한 이유다. 저자가 이번에 펴낸 책은 '기억에 남고 발상이 신선해 한눈에 꽃히는 광고 만드는 법'에 초점을 맞췄다. 아이디어 발상법, 카피 쓰는 법, 온



라인 광고 잘하는 법 등을 소개한다.

저자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으라고 권한다. 이 방법의 적용은 최소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하다.

자신을 위한 표를 그리고 카테고리별 요일, 시간, 장소, 날씨, 기분, 행동, 집중도, 바쁨 또는 여유로 나눠 상황별로 체크하라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저자는 기록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말은 "나는 기록한다. 고로 광고한다"로 바꿔 말할 수 있다. 기록하지 않는 아이디어뱅크는 없다는 의미다.

"광고 아닌 광고의 효과"를 노리는 것도 필요하다. 지구는 온통 다양한 광고로 홍수를 이룬다. "우리의 움직임, 행동, 숨 쉬는 것까지 광고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즉 사람들은 광고에 쉽게 지친다는 말이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광고로 소비자에게 다가갈까? 광고 같은 광고를 하지 말자. 대신 일상생활을 말하듯이 고객과 소통하자. 광고 아닌 광고가 최고의 광고다."

이밖에 저자는 '15초만 비틀어도 슈퍼 빅아이디어는 탄생한다', '전혀 다른 미디어를 믹스하라', '사람과의 관계를 이용하



근엄해야 할 변호사 명함을 태월로 제작했다. 웃기는 변호사를 싫어할 의뢰인은 없기 때문이다. <라온북 제공>

라' 등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소개한다. 신선하고 기발한 발상은 결국 잘 팔리는 성과로 연계된다.

흥미로운 부분 가운데 하나는 웃기는 광고가 가장 인기 있다는 대목이다. 주변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웃기는 사람인 것도 유사하다. 광고 역시 마찬가지라고 한다. "웃기는 사람과 얘기하면 그 사람의 호감도가 올라가듯, 웃긴 광고 역시 그 브랜드를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장우 경북대 교수는 추천사에서 "세상을 바꿔놓는 혁신은 작은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작은 아이디어를 빛나는 성과로 다듬고 완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책은 마음속 작은 씨앗을 슈퍼 빅아이디어로 키워내는 비결을 담고 있다. 그 비결의 중추적역은 결국 사람의 마음과 인성으로 향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라온북·1만5000원>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 일기 여행 = 버지니아 울프, 루제린저, 실비아 플라스 등 여성문학 선구자들의 삶과 창작 과정이 담긴 그들의 일기장을 들여다보면 좋은 일기 쓰는 법을 소개하는 책이 나왔다. 사회의 역할, 결혼과 양육 등 여러 제약 속에서 여성 작가들이 삶을 기록한 방법을 분석하고, 여성 일기연구회 창립자인 저자 말린 쉬위의 경험을 살려 일기 쓰기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까지 소개한다.



<산지니·2만원>

▲ 딸에게 들려주는 한국사 인물전1·2 = 발해 유민들을 받아들인 고려인들부터 자전치왕 임복동까지 한국사를 빛냈으나 교과서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이들의 이야기 82편을 2권에 걸쳐 풀어냈다. 아버지가 딸에게 들려주듯 편한 글로 채워진 이 책은 1990년대 초 PC통신 '하이텔'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산하'라는 닉네임으로 글쓰기 활동 중인 김형민 PD가 썼다. <푸른역사·각권 1만5000원>



▲ 그림, 동물이 되어 보자 = 동물의 세계를 이해하고자 직접 동물이 된 이가 있다. 옥스퍼드대학 연구원이자 수의사인 저자 찰스 포스터가 오소리라 되어 지렁이를 먹어보고, 사슴이 되어 사냥개에 쫓기는 등 말 그대로 '동물의 삶'을 체험했던 이야기를 생리학·생물학적 지식을 결합한 탐구로 풀어낸 책이다. 동물에 대한 이해가 곧 타인을 이해하는 길이라는 깨

달음의 과정도 함께 담았다. <놀와·1만5800원>

▲ 미래교육,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 기업인, 교사, 교육운동가 등 교육 현장에서 변화를 주도했던 교육혁신가 12명이 분석한 우리 교육의 현실과 미래를 한 권에 담은 책이 출간됐다. 개별화·맞춤형 교육, 농촌을 활용한 미래형 학교 모델, 플랫폼 방식 교육 콘텐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제언들을 혁신가들의 경험과 전문적 견해를 바탕으로 풀어냈다. <살림터·1만6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 큰 토끼 작은 토끼 = 작은 토끼는 집에서 꽤나 먼 곳에 특별한 당근 가게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한껏 들떠서, 큰 토끼는 사나운 동물들과 깊은 강물, 갇힌 숲길을 헤쳐 갈 것이 두려워 작은 토끼를 말한다. 다음 날 아침, 작은 토끼가 편지 한 장만 남겨두고 당근 가게를 향하자 큰 토끼는 할레발떡 그를 찾아 나선다. 막연한 두려움에 망설여지는 일이라도 용기를 내 시도하는 법을 따듯한 그림으로 풀어냈다. <한울림어린이·1만3000원>



<한울림어린이·1만3000원>

▲ 할머니의 비행기 = '코로보쿠루 이야기'의 저자 사토 사토무의 글과 무라카미 스토무의 그림으로 '후생대 신상'과 '노마 아동문예상'을 받았던 '할머니의 비행기'의 개정판이 출간됐다. 뜨개질로 비행기를 만들며 좋아하는 일을 하는 기쁨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끈기와 노력을 담았다. <논장·1만2000원>



<논장·1만2000원>

▲ 에디슨 바닷속으로 사라진 생쥐의 보물 = 작은 생쥐 피트의 조상은 인류에게 엄청난 도움을 줬다고 전해지는 보물을 갖고 있었으나, 미국으로 가는 증기선이 침몰하면서 대서양에서 실종되고 말았다. 피트는 교수와 함께 대서양 깊숙이 가라앉아 있는 조상의 보물을 찾아 모험을 나선다. '윈드버그 하늘을 나는 생쥐'의 작가 토르벤 쿨만이 특유의 탄탄한 스토리와 수준 높은 그림으로 펴냈다. <책과콩나무·1만5000원>



어떤 인생이라도 작품이 되고, 자서전 쓰기에 부족한 삶은 없다

안정효의 자서전을 씁시다

안정효 지음

나이가 들면 자신의 삶에 대해 한번쯤 정리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찌보면 소설가 안정효의 말처럼 '사람이 인생극장'이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 공공 기관 등에서도 '어르신 자서전 쓰기' 등 자신의 삶을 글로 표현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참여자가 꽤 많다.

'안정효의 자서전을 씁시다-글쓰기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는 법'은 자서전 쓰기의 방법론과 그에 관한 철학을 세심히 풀어낸 책이다.



'하얀전쟁' 등 베스트 셀러를 쓴 소설가이자, 수많은 외국문학 작품을 우리말로 옮긴 번역가이자, 영화와 관련한 다양한 글을 쓴 저자는 이야기꾼의 면모를 보여주며

다양한 사례를 들어 자서전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특히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영혼의 자서전', 이철용의 '어둠의 자식들' 등 국내외 문학작품을 비롯해 '애수', '사운드 오브 뮤직', '아라비아의 로렌스', '브릿지 존슨의 다이어리' 등 수백편에 이르는 다양한 장르의 도서와 영화 등을 통해 전하

는 실질적인 사례는 생생함을 준다. 그 덕에 책은 자서전 쓰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수많은 문학작품과 영화를 통해 또 다른 지적 탐험도 가능하다.

책은 자서전 쓰기의 '첫 걸음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주는 조언에서부터 시작해 인물 구성의 변주, 영감으로 열어주기, 이동하는 인생의 여로, 어휘와 문장과 표현력 등 모두 22개 장으로 나눠 들려준다.

저자는 " '나'를 기록하고 싶어하는 충동은 지극히 인간적"이라며 "아주 가끔씩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라는 두렵고도 불가피한 질문을 마주할 때 일종의 해독제 역할을 하는 게 '자서전 쓰기'라고 강조하고 "아무리 보잘 것 없는 인생이라 한들 작품이 될 수 있고, 자서전이 되기에 부족한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또 책에서 효과적인 주제 설정, 이야기 구성방법과 적절한 문장 활용, 출판 과정에서 요구되는 제반 사항까지도 꼼꼼히 살핀다.

특히 그는 자서전을 쓰기 위해 자서전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따위의 기본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초보 작가들은 전기나 회고록 대신 '정통 문학작품'을 길라잡이로 삼아보라고 강조한다. 자서전 집필을 공부하기 위해 스승으로 삼을 만한 사람을 딱 한 사람만 고르라고 한다면 서슴지 않고 '윌리엄 사로얀'을 대겠다며 그의 자전적 소설로 열 네살 소년과 네살 짜리 어린 동생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설 '인간 희극'을 권한다.

<민음사·1만98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역
엔씨백화점
광주역점
오리거리
아로마라이프
성요한병원
유동서거리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www.aroma-life.co.kr

FACE 메이크업만 하는 시대는 끝!
이제는 BODY 메이크 UP!

☆☆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 보장 속옷 12년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가공
원적외선 가공

대리점·총판문의 **1588-2219**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경일로 235 V&G빌딩 서울사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축복빌딩(도곡동 518-9)